

---

# 쿠바 블로고스피어의 지형도: '관변주의자'와 '용병'

테드 헨켈

테드 헨켈(Ted Henken)은 뉴욕시립대학 바루치 칼리지의 사회학 박사.  
쿠바를 주제로 한 블로그 <엘 유마>(El Yuma)를 운영하고 있다.

---

## I. 들어가는 말

2011년 4월 15일부터 27일에 걸쳐 현지조사차 쿠바를 찾았다. 쿠바에 체류하는 동안 모든 이데올로기 성향의 젊은 블로거들을 알게 되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블로거 집단이었다. 인터뷰에 앞서 쿠바 정부의 사전 허가를 얻지는 않았다. 블로거들이 개인이기도 했지만, 그런 인터뷰가 '민감한' 사안임을 생각하면 쿠바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블로거들과 20여 차례에 걸쳐 매우 솔직하고 폭로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sup>1)</sup> 그 덕분에 쿠바

1) 나는 연령, 인종, 젠더, 정치적 입장에서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인터뷰 대상자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쿠바의 소리」의 요아니 산체스와 그녀의 남편 레이날도 에스코바르뿐만 아니라, 「블로거 쿠바」의 일레인 디아스와 유디비안 크루스 알메이다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년 쿠바」라는 혁명적인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마탄사스대학의 두 재학생 로베르토 곤살레스 페랄로, 아롤도 카르테나스 레마와도 인터뷰를 했고, 그런가 하면 「아바나 타임즈」의 젊은 블로거 에라스모 칼사디아, 알프레도 페르난데스와도 인터뷰를

에서 출국할 때, 호세 마르티 공항에서 두 명의 국가안전국 직원에게 조사를 받았고, “이게 당신의 마지막 쿠바 여행”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아바나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블로거들은 나에게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자기들끼리는 그런 일이 매우 드물었다. 상대를 믿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친정부 인물’이라는 꼬리표가 붙거나 ‘반혁명적 용병’, ‘사이버 반체제인사’라는 혐의를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친정부’이니 ‘반체제’이니 하는 수식어로 블로거를 묘사할 수도 있었지만(단어마다 명쾌한 정의를 내릴 수만 있다면 말이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침묵시키기 위해 그런 수식어를 동원한다는 점이다.

이 모든 일은 양극화된 국제적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쿠바의 네티즌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미국의 엠바고와 쿠바 당국의 인터넷 통제가 그것이다. 불신과 인신공격,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신뢰할 만한 정보의 결핍 등의 정치 문화는 쿠바에도 마이애미의 리틀아바나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게다가 쿠바 정부는 최근에 방영한 ‘쿠바의 이유’라는 다큐멘터리시리즈물 「사이버전쟁」에서<sup>2)</sup> “포위된 광장에서 반체제는 배신이다.”라는 극단화된 프로파간다를 통해 여러 블로거에 대한 불신과 고립을 조장하려고 시도했다.<sup>3)</sup>

했다. 「블로거 쿠바」 그룹에 속한 회원 블로거인 흑인 여성주의자 산드라 알바레스, 야스민 포르탈레스와도 만났고, 또한 포털사이트 「쿠바의 소리」에 속한 흑인 기자 이반 가르시아와 흑인 변호사 라리차 디베르센트도 만났다. 생화학자였다가 지금은 작가 및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오를란도 루이스 파르도 라소, 정부 비판적 연구자인 미리아 셀라야(이들은 「쿠바의 소리」 소속이다)를 인터뷰했고, 동시에 디지털집단 「블로거 쿠바」에 속한 프로그래머 알레한드로 루이스와 로저 트라바스도 인터뷰했다.

2) “사이버전쟁은 폭탄이나 탄환의 전쟁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과 알고리즘, 바이트의 전쟁이다. 펜타곤은 2003년부터 비정규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2009년에는 비정규전 교범을 만들었다.” 이는 쿠바 국영 텔레비전방송이 올해 3월 21일 방영한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표현이다.

3) 미국 정부가 인터넷 및 쿠바와의 통신선 확장을 반쿠바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사

## II. “느리고 제한적이며 비싸다”

### 쿠바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이동통신기술

2011년 1월 미국의 정보시스템 교수 래리 프레스는 르포기사에서 오늘날 쿠바의 인터넷을 “느리고 제한적이며 비싸다.”고 기술한 바 있다.<sup>4)</sup> 프레스는 199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 정보과학의 선두주자였던 쿠바가 지금은 가장 고립되고 접속하기 어려운 국가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사정이 이렇게 변한 데는 세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엠바고, 쿠바의 만성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독재자의 딜레마’가 그것이다.

“엠바고가 시작될 때부터 (...) 통신과 우편이라는 두 가지 의제는 항상 양자 협상의 대상이었고, 열린 자세로 협상했다.”<sup>5)</sup> 점은 지적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위성을 통한 연결망을 해져 광섬유케이블로 바꾸려는 쿠바의 시도를 미국이 방해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방해는 쿠바 정부에 대한 기술적 징계이자 경제적 징벌이 되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쿠바 국민들을 더욱 고립시켰다.<sup>6)</sup> 그러나 문제는 쿠바 정부가 웹2.0 세계에 더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쿠바인에게 인터넷 접속을 개방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지금으로서는 베네수엘라에서 끌어온 광섬유케이블이 온전히 작동하여 광대

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한 공무원이 쿠바와의 통신은 “쿠바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우리의 최고 수단”이라고 말한 데서도 확인된다. Nick Miroff, “Getting Cell Phones into Cuban Hands,” *Global Post*, 2010.5.17. [www.globalpost.com/dispatch/cuba/100514/cell-phone](http://www.globalpost.com/dispatch/cuba/100514/cell-phone)

4) Larry Press, “The State of the Internet in Cuba,” 2011.1. <http://laredecubana.blogspot.com/>

5) Jose Remón y Emilio Morales, “Las telecomunicaciones en la sociedad cubana actual”, ponencia presentada ante la Asociación para el Estudio de la Economía Cubana, Miami, 6 de agosto de 2011.

6) Larry Press, “Cuban Internet: Past, Present, and Future”, ponencia presentada ante la Asociación para el Estudio de la Economía Cubana, Miami, 5 de agosto de 2011, audio disponible en <http://som.csudh.edu/fac/lpress/recording/cuba/cuba.html>

역 네트워크가 개선되기를 기대할 뿐이다.<sup>7)</sup>

그러나 ‘인터넷 유저’라는 표현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쿠바에서 인터넷 유저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암시장을 통해 “느리고 제한적이며 비싼” 인터넷망에 접속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정부기관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반을 조금 넘는 경우는 인트라넷(내부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고, 삼분의 일 정도가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속도는 매우 느리다.<sup>8)</sup>

그런데 최근 들어 휴대폰 부문은 놀랄 만큼 성장했다. 휴대폰은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트위터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갈수록 늘고 있다. 쿠바의 휴대폰 사용자는 2009년 621,200명이었고 2010년에는 백만 명을 넘어섰다.<sup>9)</sup>

7) 라틴아메리카의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규모를 비교하자면, 2010년 지역 전체 평균이 30명을 넘는 데 반해 쿠바는 15.9명으로, 벨리즈,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수리남의 여섯 나라만 앞서 있을 뿐이다. Oficina Nacional de Estadísticas (ONE), “Tecnología de la información y las comunicaciones en cifras. Cuba 2010,” 2011.6; Larry. Press, “The State of the Internet in Cuba”.

8) 2009년 쿠바국립통계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대상자의 단 2.9%가 전년에 인터넷 직접 접속을 이용했다고 대답했다. 반면 그 두 배인 5.8%는 전자메일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다. 2007년에 이루어진 통계청의 또 다른 설문에서는 “설문대상자의 88.8%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반면, 단 5.2%가 (···) 집에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대답했다. Dalia Acosta, “Blogs por cuenta propia,” *Inter Press Service*, 2008. 9. <http://ipsnoticias.net/nota.asp?idnews=89937>

9) ONE, op.cit.

### III. 쿠바의 블로그스피어와 그 특징

앞서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쿠바의 인터넷은 진화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웹1.0 시대에 살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나 이동통신기술도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워드프레스(Wordpress), 블로거(Blogger) 등과 같은 가장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들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엘리트(특권층 또는 영리한 사람들)만이 이 ‘행복한 신세계’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쿠바의 인터넷 보급과 접속 규모가 작고, 그 결과 쿠바에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쿠바의 블로그스피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먼저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쿠바에 대한 글을 쓰는 해외 개설 블로그(이 경우 블로거는 쿠바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다)와 쿠바에서 개설한 블로그의 구별을 말한다. 쿠바에서 개설된 블로그는 수많은 ‘친정부’ 블로그나 정부가 직접 개설한 공식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아직 외국 서버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쿠바 밖에서 만든 쿠바 관련 블로그다. 이런 블로그는 매우 다양한 정치적 주제와 입장을 내건 채 대량으로 개설되었다. 짐작하듯이, 이러한 블로그의 상당수는 망명 쿠바인이 운영하고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리하고 끈질기게 쿠바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가장 비판적이면서 인지도가 높은 블로그는 「종말 임박」(Penúltimos Días)이다. 이 블로그는 2006년 8월 1일 쿠바인 에르네스토 에르난데스가 피델 카스트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바르셀로나에서 만들었다. 쿠바 정부 공식매체와 친정부 블로거들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던 에르네스토 에르난데스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적으로 분류되어 기소된 상태이다. 그러나 「종말 임박」은 쿠바

안팎의 많은 쿠바인들이 블로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동의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비판적 주장과 지속적인 정보를 얻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블로그가 되었다.<sup>10)</sup>

쿠바 블로그의 정확한 개수를 제대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쿠바 관련 블로그」(Blogs sobre Cuba)라는 사이트에는 1,170개의 블로그가 링크되어 있다.<sup>11)</sup> 관리지는 “우리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링크된 블로그 중에서 내가 자주 방문하는 곳은 24개인데, 이들을 통해 쿠바 안팎에 있는 쿠바 블로그스피어의 규모와 다양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 「Cubaencuentro.com」에는 93개의 블로그가 링크되어 있다. 「쿠바연구그룹」(Cuban Study Group)은 쿠바에서 글을 올리는 29개의 블로그와 쿠바에 대해 글을 쓰는 해외 블로그 5개를 모아놓고 있다. 끝으로 내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 「엘 유마」에는 159개의 블로그가 링크되어 있다. 나는 이 블로그들을 ‘영어로 된 쿠바 블로그’, ‘쿠바 내 블로그’, ‘쿠바 밖 블로그’, ‘포토 블로그’, ‘뉴스 블로그’ 등으로<sup>12)</sup> 카테고리를 나눠놓았다.

10) 쿠바 바깥에서 만들어진 쿠바 블로그는 그 외에도 아주 많다. 집단 블로그 「아바나 노트」처럼 매우 온건한 것도 있고, 「쿠바에 대해」와 「마체테라」처럼 친정부적인 경우도 있다. 이 블로그들은 스페인어뿐 아니라 다른 외국어들로도 작성되며,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가령 주제별로 보면, 뉴스(「강한 카페」, 「말레론을 따라」, 「쿠바 화페프로젝트」, 「쿠비수철」, 「쿠바 콜라다」), 그래픽 유머(「과마 신문」, 「가린샤 클럽」, 「바텔라의 블로그」), 정치(「쿠바 트라이앵글」, 「비범한 감각」, 「바발루 블로그」, 「캐피톨 힐 쿠바인」), 인류학(「쿠바 인종」), 경제(「쿠바경제」), 인터넷(「쿠바의 인터넷」), 음악과 문학(「목소리 톤」, 「엔리스코」), 영화(「영화의 눈」) 등이 있다.

11) 쿠바와 라틴아메리카 다른 나라들의 블로그 현황을 비교하려면 페루 사이트 「블로그갈락시아」를 방문해보면 된다. 이 사이트에는 라틴아메리카 전 지역의 블로그 주소가 링크된 디렉토리가 따로 있는데, 블로거 본인들이 직접 주소를 등록한다. 선별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대표적인 블로그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지만, 이 사이트에 링크된 쿠바 블로그는 겨우 414개라는 걸 알 수 있다. 반면에 칠레는 6,030개, 코스타리카는 950개, 아르헨티나는 10,905개, 에콰도르는 2,368개, 스페인은 23,469개, 베네수엘라 5,547개, 푸에르토리코는 796개, 도미니카공화국은 1,521개가 링크되어 있다. 링크된 블로그 개수가 쿠바보다 적은 나라는 287개의 파나마, 219개의 니카라과, 212개의 파라과이 단 세 나라뿐이다.

12) 요안드리 폰타나의 블로그를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언급할 만하다. ‘요안드리(Yahandry)」라는 이름은 요아니 산체스를 비롯한 사이버 반체제인사를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변주의 블로거의 가명이다.

#### IV. 네 개의 블로거 종족:

「쿠바의 소리」, 「아바나 타임즈」, 「블로거 쿠바」, 「청년 쿠바」

이제 우리는 가장 유명한 네 개의 블로거 종족, 바꿔 말해서 네 개의 블로거 그룹을 다룰 차례이다. 네 그룹은 「쿠바의 소리」, 「아바나 타임즈」, 「블로거 쿠바」, 「청년 쿠바」이다. 이 블로거들은 인터넷 접근성이 양극화되고 연결이 미약한 상황에서도 하나같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터넷 연결을 지속하고 국내외 대중과 소통하려는 투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이들은 개설의 기원, 독립의 정도, 비판적 시각, 웹 접속 방식, 정치적 입장 등에서는 서로 상이하지만, 모두들 정보와 대화의 공간, 대규모 관변 매체들로부터 독립적인(그렇다고 반드시 상반되지는 않지만) 논쟁의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 1. 「쿠바의 소리」

「쿠바의 소리」는 인터넷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싶은 모든 쿠바 거주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이 사이트는 어떤 유형의 재정 지원도 받지 않으며, 어떤 정치단체에 속하거나 연관되어 있지 않다. (...) 블로거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나 링크 설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명백한 음란물이나 인종차별적인 내용,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블로그일 경우에만 가입이 거부된다.

- 「우리는 누구인가?」, 「Vocescubanas.com」, 2009.12.27

사실 '요안드리'는 산체스의 블로그 'Y세대'에서 따온 듯하다. 그는 이 블로그에서 "아니슬레이디, 요안드리, 유시미, 유니에스키 등 이름에 'y'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내게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블로그 「쿠바의 소리」는 2004년 12월 「쿠바 여론」(Consenso desde Cuba)이라는 디지털 잡지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블로그도 포털도 아닌 전통적인 신문 포맷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포털사이트 「Desdecuba.com」에 블로그를 열었다. 「쿠바 여론」은 레이날도 에스코바르, 요아니 산체스, 미리암 쉘라야, 디마스 카스테야노스, 마르타 코르티사스, 에우헤니오 레알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포털로, 이들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쿠바 여론」은 처음부터 ‘시민 언론’ 발전을 위한 포털사이트로 인식되었고, 쿠바의 관변 매체나 ‘정치적 자격요건이 필요한’ 출판물에는 등장하지 않는 견해를 실었다. 요아니 산체스는 2008년 7월의 첫 인터뷰에서 쿠바의 획일적인 현실에서 시민 언론의 실천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쿠바의 경우, 정부의 정보 독점이라는 맥락이 존재하므로 시민 언론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모든 매체를 통제한다. 그러므로 시민 기자는 관변 언론이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기사화하는 사람이다.”

이 잡지는 2004년 12월의 첫 사설에서 강경우파나 강경좌파와는 다르게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쿠바 정치문화에 일반화된 인신공격과 인신모욕은 다원주의적인 진지한 어조로 거부했다. 이 잡지의 모토는 “차이에서 출발하여 합의에 도달하기”로, 모든 정치 성향, 모든 지역의 쿠바인들에게 언어폭력을 버리고 예의를 갖추 토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2년여가 지난 2007년 「쿠바 여론」은 「모두 함께」(Contodos)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잡지라기보다 블로그 형태로 개편했다. 이 잡지의 웹페이지에는 ‘포트폴리오’ 공간이 있었는데, 2007년 4월 요아니 산체스가 이곳에 자신의 블로그 「Y세

대」를 오픈했다. 그때까지 요아니 산체스는 「쿠바 여론」과 「모두 함께」의 기획에 저자가 아니라 웹마스터로 참여했다. 산체스가 블로거가 된 동기는 2007년 1~2월에 있었던 ‘갯빛 5년’에 관한 지적 논쟁에서 좌절된 경험이었다.<sup>13)</sup> 이 논쟁은 「Y세대」 탄생의 기폭제이면서 동시에 쿠바 지성계에 발생한 지진이었다. 10여 명의 쿠바 지식인이 대화의 범위와 정부의 문화정치를 주제로 삼아 전례 없는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논쟁은 거의 전적으로 이메일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때부터 요아니 산체스와 남편 레이날도 에스코바르는 일단의 블로거들과 함께 이메일로 제한된 세계를 훌쩍 뛰어넘어 웹2.0이라는 소셜네트워크, 특히 블로그와 트위터를 이용함으로써, 쿠바 사회에 시민 여론 형성과 비판적 토론의 장을 열었다. 요아니 산체스는 정보 분야에 대한 지식 면에서나 블로그의 선구자이자 쿠바 블로그스피어 선도자로서의 리더십 측면에서 2007년에 블로그 세계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소셜네트워크 교실인 ‘블로거 아카데미’, ‘가상의 섬’ 콩쿠르,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집단번역 사이트 「우리가 들은 이야기」, 「쿠바 해석하기」, 블로거 플랫폼 「쿠바의 소리」, 잡지 『목소리』, 동영상 시리즈 「시민의 논리」 등 일련의 집단 프로젝트를 통해 블로그스피어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2007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도 새로운 소셜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힘과 파급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특히 무명의 젊은 가정주부 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으니 더 그랬다. 사실 이 초창기에 쿠바 정부는 반체제인사이고 독립 저널리스트의 이력이 있는 레이날도 에스코바르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다. 요아니 산체스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남성우월주의의 긍정적 측면은 단 하나뿐이다. 누구를 체포해야 할지 양자택일에 직면했을 때 때면

13) 이 논쟁은 1971~1976년에 쿠바국립문화위원회 회장이었던 루이스 파본 타마요가 「각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었다. 타마요는 1970년대 초 주요 문화정책 집행자로서, 교육과 문화 부문에 적용되는 일련의 비타협적인 기준들을 정한 사람이다.

남편 레이날도를 찾았다. 일은 내가 했는데 여성이라 과소평가한 것이다.”

‘블로거 아카데미’의 목적은 쿠바에서 블로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7일 1차 모임에서 요아니 산체스는 블로그 편집에 관한 다양한 기본 기술을 소개했고, 에스코바르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규칙을 어떻게 블로그에 적용할지 설명했다. 그리고 에우헤니오 레알은 이 새로운 형태의 전자 커뮤니케이션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규범을 소개했다.<sup>14)</sup> 그때부터 블로거 아카데미는 아바나에 있는 요아니 산체스와 에스코바르의 집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모였다. 가끔은 다른 지방에서 모이기도 했다. 그리고 참가들에게 휴대폰을 통한 트위터 사용법을 교육하였다. 첫 번째 모임에서 ‘가상의 섬’ 콩쿠르 개최도 결정했다. 콩쿠르의 목적은 “쿠바의 블로거스피어를 촉진하고, 인터넷을 통해 생각, 정보, 증언을 표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sup>15)</sup>이었다. 마지막으로 2009년에는 새로운 블로거 플랫폼 「쿠바의 소리」와, 쌍둥이 사이트 「우리가 들은 이야기」, 「쿠바 해석하기」가 개설되었다. 「쿠바의 소리」를 통해 이 모든 대안적인 블로그를 링크할 수 있었고, 쌍둥이 사이트에서는 무료 번역이 가능해서 영어권을 비롯하여 다른 언어권에서도 접근이 가능했다.

이렇게 요아니 산체스의 「Y세대」(2007년 4월)를 필두로 레이날도 에스코바르의 「이곳으로부터」(2007.12), 미리암 셀라야의 「회피하지 않고(Sin EVAisión)」(2008년 1~7월에 걸쳐 ‘에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썼다)로 계속 성장해갔다.<sup>16)</sup> 현재 블로그는 더욱 다양해졌고, 제각기 고유의 스타일과 테마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14) “Itinerario Blogger”, 2008. 12. 19.

15) “Concurso de bitácoras: una isla virtual”, 2008. 12. 19.

16) 2011년 여름 「쿠바의 소리」에 등록된 블로그는 모두 40개였다. 이 프로젝트에 먼저 참여한 블로그 열 개를 꼽으면 산체스, 에스코바르, 셀라야의 블로그를 포함하여 리아 비아레스의 「주문결기/아바나빈혈증」(2008.4), 클라우디아 카우렐로의 「제8의 포위망」(2008.10), 「혁명 후 월요일」(2008.10), 「아바나에서」(2009.1), 「베리타스」(2009.2), 「다마스의 블로그」(2009.2), 「명칭이 청중」(2009.4)이다.

에스코바르의 블로그와 셀라야의 블로그는 저널리즘 성격이 강하고, 반면에 산체스의 블로그는 일화적이며, 매우 짙막한 일상생활 시평을 다룬다.

「쿠바의 소리」가 이렇게 발전과 성숙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풀이’, 카타르시스, 해방감이라는 개인 차원의 일이 결집된 시민 연대 운동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이메일, 블로그, 트위터 등 가상 공간에 한정되어 있던 대화와 토론을 실제 공간으로 이동시키려는 대범한 노력도 목격하게 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점차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단일한 의견으로 포위된 광장이 다채로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대중의 광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복중에 익숙하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공적 공간에 대한 독점을 행사하는 데 익숙하며 국제사회 이미지를 매우 염려하는 쿠바 정부는 「쿠바의 소리」의 회원들을 “제국의 용병”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모욕하고 배격하고 폄하하고 있다.

## 2. 「아바나 타임즈」

우리는 관습적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스타일의 저널리즘 결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또 쿠바 혁명에 대한 비판적 지지, 다시 말해서 혁명 지도자들이나 혁명 정책에 대해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 주장도 장려하고자 한다.(…) 우리는 악의적인 제국의 담론으로부터, 동시에 정부의 독백으로부터도 거리를 둬으로써 쿠바가 처한 실상을 소개할 것이다.

- 서클리스 로빈슨, 「「아바나 타임즈」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편견 없이 쿠바에서 쓴 글」, 2011. 4

2008년 10월 개설된 「아바나 타임즈」는 미국인 서클리스 로빈슨의 독립 미디어 실험이다. 서클리스는 여러 해 동안 니카라과에 거주했다. 쿠바에 처음 온 것은 통신사 『포렌사 라티나』의 번역과 교열 작업을 위해서였고, 2004년 중엽에는 쿠바 정부기관인 ‘통번역서비스국’에서 일했다. 통번역서비스국에서는 『그란 마』와 『반란의 청년』을 포함하여 쿠바 정부의 온라인 매체 기사를 리뷰하고 번역했다. 그러나 초기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쿠바에 머무는 8년 동안 번역 기사의 질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로빈슨의 좌절감이 커져갔다.

로빈슨은 2005년부터 「서클리스 온라인」을 운영했다. 자신의 주변 도처에 존재하지만 관련 신문에서는 접할 수 없는 수많은 쿠바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매체를 모색한 결과였다. 쿠바기자연합의 회원이던 로빈슨은 2008년 7월에 열린 제 8회 쿠바기자연합 회의가 끝난 후 쿠바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 회의에서는 “쿠바의 일상생활을 소개하기에는 쿠바 언론의 부족함이 많다는, 익히 잘 알려진 쿠바 언론의 맹점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 있었다. 이 토론으로 관련 언론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공산당과 새로운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가 도덕적 이중성을 타파해야 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언론에 반영하라고 호소한 것이 로빈슨에게는 일종의 영감의 순간이었다.

따라서 로빈슨은 2008년 10월 니카라과의 마타갈파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스페인에 거주하던 쿠바인 웹마스터의 도움을 받아, 뉴스기사와 쿠바 작가들의 개인 ‘일기’(블로그 형식)를 콘텐츠로 담은 웹사이트 「아바나 타임즈」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로빈슨은 공식 저널리즘의 대안 매체를 추구했으며, 무자비한 비판이나 일방적인 찬양은 배격했다. 한번은 로빈슨과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독립’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질문했다. 로빈슨은 “쿠바 정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의 독립, 마이애미의 쿠바 망명자들로부터,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모든 정당, 단체, 운동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바나 타임즈」는 사이버공간에 등장하자마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도메인 비용을 대고 사이트를 디자인하며 가입자들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문제 외에도, “독립 디지털 매체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정부나 대다수 국민에게 터부로 여겨지는 나라에서” 필진을 모집해야 했다. 그래서 참여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고 로빈슨은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자립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이런 일은 쿠바에서 매우 미심쩍은 일로 비쳤다. 「아바나 타임즈」의 경우는 로빈슨의 저축과 가족의 지원금으로 해결했다. 그 자금으로 사이트 운영 경비를 충당했다. 개설 첫해에는 영문 사이트라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고 로빈슨은 밝혔다.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쿠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독립 사이트이니까 별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리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겠지요.”

로빈슨은 「아바나 타임즈」를 만들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고, 쿠바 공산당이든 정부이든 어느 누구도 직접적인 검열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련의 관료주의적·이데올로기적 장애물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아바나 타임즈」는 독자들에게 매우 환대를 받았고, 로빈슨은 여전히 ‘통번역서비스국’에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포털사이트를 관리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된 것은 겨우 9개월뿐이었다. 2009년 봄 로빈슨은 직속상사가 연루된 부패사건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갈등을 겪었다.<sup>17)</sup> 「아바나 타임즈」는 그 갈등과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로빈슨이 상사의 근무윤리 상실에 대해 침묵하기를 거부하자 상사는 로빈

17) C. Robinson, 「Havana Times, escritura sin prejuicios desde Cuba. Cómo comenzó Havana Times」, ponencia presentada en el congreso 'Cuban Futures', The Bildner Center for Western Hemisphere Studies, Nueva York, abril de 2011.

슨의 블로그가 ‘허가요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그를 입막음하려 들었다.

“끝내 저는 발언 취소를 거부했고, 통번역서비스국은 1년 연장계약을 거부했어요. (...) 쿠바에 거주하는 이유가 직장이었기 때문에 한 달 후면 쿠바를 떠나야 했습니다. 2009년 6월 가족과 함께 니카라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쿠바 밖에서도 사이트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로빈슨은 블로거들과 모임을 갖기 위해 세 차례 쿠바를 방문했고, 방문 때마다 몇 주씩 머물렀다. 쿠바 당국은 이 방문을 막지는 않았다. 3년 동안(2008.2~2011.3)은 쿠바의 네티즌들에게서 「아바나 타임즈」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쿠바의 소리」의 도메인 ‘Desdecuba.com’은 차단했다). 로빈슨은 이 정책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해한다. “「아바나 타임즈」는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하는 쿠바 국민 중 상대적으로 소수에게만 보이는 공간이다. 검열관이 반체제 블로그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바나 타임즈」의 팀원은 20~25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주의를 지지하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그래서 소위 ‘정부의 독백’과는 거리를 두고자 하는 쿠바 젊은이들이다. 사이트는 주중에 매일 업데이트되고, 주말에도 대체로 업데이트된다. 하루 평균 2,000명이 방문하고, 페이지뷰는 5,000건에 이른다. 절반 가까운 독자는 미국과 캐나다 접속자이고, 쿠바 접속자는 10%다. 나머지 독자, 특히 쿠바 독자는 인터넷에 자주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메일로 글을 받아 본다. 대부분의 기고자는 쿠바에 거주하며, ‘일기’(개인 블로그와 같은)를 작성하거나 사진을 찍어 올리는 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외국에 살면서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쿠바인들도 있다. 그 밖에도 세 명의 미국인이 무료로 번역 봉사를 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목소리부터 쿠바혁명이 실제로는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좌파까지 여러 목소리가 이곳에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직 쿠바 외교관 페드로 캄포스는 「아바나 타임즈」뿐 아니라 「비판의 전망대」, 「네트워크의 카오스」(Kaos en la Red) 등의 좌파 사이트에도 비판적인 에세이를 기고한다. 에세이 제목은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직접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진부한 ‘적’ 날조하기」, 「‘국가사회주의’는 모순어법이다」. 또 「아바나 타임즈」는 요아니 산체스와의 긴 인터뷰를 신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아바나 타임즈」의 블로거 에라스모 칼사디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다. 그 당시에는 문과대학에서 수업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문제, 다시 말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 분위기가 과열되어 있어서 어떤 글을 쓰든 위협했기 때문이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문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키는 대로 쓰든지 둘 중 하나였다. 걱정이 많았다. 서클리스는 미국인이지 않은가? 그러나 서클리스를 알게 된 후 금방 공감할 수 있었고, 우정과 신뢰를 느꼈다. 쿠바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치관은 좌파적이었다. 그러니 자극적인 사이트를 만들거나 돈을 추구하는 뻔한 일을 벌이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로빈슨은 쿠바 저널리즘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에서 비껴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고, 그러니 이쪽이나 저쪽에 이용당하지 않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두려움이 있다.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

는 두려움이다.” 실제로 칼사디아는 「아바나 타임즈」와 함께한 첫 일 년 동안 직장에서 압력을 받고 논쟁에 시달렸으며, 결국에는 직장까지 잃었다. 그러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일은 계속했다.

### 3. 「블로거 쿠바」

「블로거 쿠바」는 구성원 각자의 개인적 경험과 견해에서 출발하여 쿠바의 국내 현실을 사유해보기 위한 공간이다. (...) 「블로거 쿠바」는 초기 발의안의 목적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초기 발의안은 쿠바의 실제 생활이 국내 언론에든 해외 언론에든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한 이분법이 특징이었다. 이제 「블로거 쿠바」는 (...)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러한 공간의 확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의 견해로, 진실은 다중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만들어진다.

- 「블로거 쿠바」 - 쿠바를 살아가고 사유하기 위한 공간, 2011년 7월 8일 선언문

「블로거 쿠바」 그룹은 2008년 6~9월에 탄생했다. 이 초기의 포털은 2009년 12월까지 일 년 남짓 존재했다. 그로부터 일 년 반 동안 오프라인 상태였던 「블로거 쿠바」 커뮤니티는 2011년 7월 8일 위에 인용한 원칙을 선언하면서 원래의 도메인이었던 'www.bloggerscuba.com' 주소로 다시 등장했다. 이 선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쿠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국내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매체도 거부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복수성, 다양성, 포용성을 믿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자기결정권과 주권, 사회 정의와 평등을 믿었다.

이 사이트에는 그룹의 모든 블로그가 링크되어 있는데, 모두 15개이다. 이 그

룹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블로그는 일레인 디아스의 「디지털 논쟁」이다. 반인종주의 활동가이자 성평등 활동가인 산드라 알바레스와 야스민 포르탈레스도 참여하고 있는데, 둘 다 흑인이자 페미니스트이다.

「블로거 쿠바」는 원래 메탈음악과 컴퓨터의 마니아인 로저 트라바스와 쿠바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데이비드 차페의 아이디어였다. 차페를 통해 스페인의 웹 호스팅을 받을 수 있었다. 2008년 6월 2일 트라바스는 그룹의 단체 블로그에 처음 포스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쿠바에 거주하는 모든 쿠바 블로거를 결합시킬 생각으로 이 블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가을 즈음 이미 제1차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임을 “자기식대로 만들어가는 블로거들”의 1차 회합이라고 명명했고, 9월 27일 센트로 아바나의 전산전자회관에서 모였다. 쿠바에서 만든 블로그를 ‘자유로운 표현형식’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는, 아주 단순한 목적을 표방한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열한 명이었다. 집단적 포털에 버금가는 그룹이었던 「블로거 쿠바」가 해체된 것은, 부분적으로 데이비드 차페의 탈퇴와 서버 비용의 부족 때문이었다.

「블로거 쿠바」는 「아바나 타임즈」와 공통점이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나 수준 높은 기술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실 때문에 비판적 언어는 상당히 순화되었다. 때로는 쿠바 사회주의 체제의 몇 가지 양상이나 특정 공무원이나 관변 언론인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울 때가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층의 말을 인용하거나 사회주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모습에서 보듯이, 항상 ‘혁명의 범위 안에’ 머물고 있다. 사회주의 이상에 대한 믿음, 권력과 일종의 타협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인터넷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그들은 연령, 젠더, 인종, 환경, 성

적 다양성의 주제에 관해서 특히 비판적이고, 쿠바 안팎에서 이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더 확대할 것을 지지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혁명 지지파인 것이다.

그래서 「블로거 쿠바」의 두 블로거, 「쿠바 흑인여성은 이래야 한다」의 산드라 알바레스와 「디지털 논쟁」의 일레인 디아스는, 위에서 언급한 다큐멘터리 ‘사이버전쟁’에서 관련 미디어로부터 ‘사이버혁명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에, 클라우디아 카우텔로, 오를란도 루이스 파르도 라소, 미리암 셀라야, 요아니 산체스 등 다른 블로거들에게 ‘사이버 반체제파’니 심지어 ‘사이버테러리스트’라는 오명을 씌웠고, 미국 정부를 위해 복무한다고 비방하기도 했다. 디아스는 인터뷰에서 다큐멘터리 ‘사이버전쟁’이 자신을 ‘반(反)요아니’ 블로거로 소개하고 단정하는 게 전혀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저는 그 이상입니다.”

#### 4. 「청년 쿠바」

「청년 쿠바」는 관련 블로그가 아니다. 우리는 쿠바혁명의 장점은 수호하고 혁명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에 역행하거나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것은 비판한다. (...) 이 블로거는 우리가 주도하여 개설하였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발간하는 것이나 하는 일에 대해 어느 누구와도 의논을 구하지 않는다. (...) 「청년 쿠바」는 뭘 하든 그 일을 할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은 날이 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청년 쿠바」가 아닌 것이다.

- 로베르토 G. 페랄로, 「논쟁적인 만남에 대한 성찰」, 「청년 쿠바」, 2011. 5. 5

나는 마탄사스에 있는 「청년 쿠바」 창립자들을 방문했다. 기본적으로 이 블로

그는 혁명과 사회주의, 국가의 주권을 옹호하고, 요아니 산체스와 다른 반체제 블로거들을 자주, 그리고 열렬히 공격한다. 링크 리스트에는 관변 언론인의 블로그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창립자는 마탄사스대학의 교수들과 대학원생 세 명(아를도 카르테나스 레마, 로베르토 페랄로, 그 외 한 사람은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다)이고, 동 대학의 학부생들도 함께하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 가장 활성화된 곳은 코멘트 코너로, 종종 진정한 논쟁의 장소가 된다. 「청년 쿠바」는 주제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여주기도 하며, 근본적으로는 논쟁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인다. 블로그의 접속 방식에 있어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 쿠바」와 「블로거 쿠바」는 기관을 통해 접속하고, 반면 앞에서 말한 「쿠바의 소리」와 「아바나 타임즈」는 호텔에서 외국인들에게 시간 단위로 빌려 접속하거나 암시장을 이용한다.

「청년 쿠바」의 블로거들은 ‘관변주의’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더라도 정부 공식 입장에 가장 가깝다. 이들은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달 동안(2011년 3~8월까지) 블로그 「나쁜 글」의 운영자 레히나 코울라와 매우 존경스럽고 풍요로우며 전례 없는 디지털 대화를 펼친 적이 있다.

## V. 꼬리표를 넘어

나는 정치적으로 친정부적인 입장을 띠고, 기관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특징으로 하는 블로그 그룹을 ‘관변’이라고 분류하겠다. 물론 내가 ‘관변’이라고 정의하는 의미는 그 이상의 것이기는 하다. 기관을 통해 접속은 하지만 ‘관변’이라고

분류되지 않을 사람들이 운영하는 친체제적인 블로그도 존재한다. 내가 ‘관변’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직적이고 훈련된 미디어 전열을 갖춘 블로그들로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혁명을 옹호하고 혁명 비판세력을 공격·비방하려는 명백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뜻한다. 「중말 압박」의 운영자 에르네스토 에르난데스는 일레인 디아스의 「블로거와 마침표」라는 포스팅에 대한 답변 글에서 이에 관한 유용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일레인의 포스팅은 ‘혁명적인’, ‘대안적인’, ‘관변주의적인’, ‘용병의’, ‘카스트로주의자’, ‘자유로운’ 등 공허한 형용사를 동원하여 블로거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 반론한 글이다.

‘관변’ 블로거들이 존재한다. 이는 사실이다. 몇 달 전 검열을 거친 동영상에서 쿠바 장성은 독립적인 블로그스피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안전국의 구상에 따라 만들어진 전략이라고 고백했다. 현실에 대해 단순히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하는 쿠바인들과 이 블로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관변 블로거들은] 인터넷 접속과 그 밖의 보조금이 제공되므로 정부 발표를 재생산하고, 범례에 어긋나지 않은 매우 ‘매력적인’ 담론을 만들어 내며, 단지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용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블로거들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청년 쿠바」의 혁명 지지파 블로거들이든 「블로거 쿠바」의 비판적이고 역동적인 블로거들이든 자신들의 기획이 권력의 ‘명령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 기층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추동하는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블로거 쿠바」의 홈페이지는 ‘공식’ 및 ‘관변’과,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혁명성’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들은 ‘국가의 자기결정권과 주권, 사회정의와 평등’을 신뢰할 뿐 아니라 ‘목소리의 다양성, 다수의 동의에 따른 참

여와 포용이 출발점이 된 미래 쿠바의 건설'도 믿는다. 따라서 이런 입장 때문에 관변 블로거라고 지칭한다면 폄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블로거들이 그런 자유를 금지된 내용의 글을 쓰는 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자유'와 '자발성'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똑같이 진정성이 있고 자유로운 노력인데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혁명 내부에' 있지 않다고 해서 '용병', 심지어 '사이버테러리스트'라는 꼬리표를 붙여 처벌하고 비방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와 인터뷰한 레이날도 에스코바르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정곡을 찔렀다. "두 블로고스피어(대안 블로고스피어와 제도권 블로고스피어)의 차이는 초점의 차이에 있다. 즉 대안적 블로거들은 금지된 일을 하기 위해 자유를 사용한다. 이들은 허가받은 일을 하려고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제 초창기에 해당하는 쿠바 블로고스피어의 서론적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터넷 접근성을 누가 제공하고 누가 박탈할 수 있는가? 어떻게 네트워크에 접속하는가? 직장을 통해서인가, 국가기관을 통해서인가, 지인을 통해서인가, 암시장을 통해서인가, 호텔에서인가, 대사관을 통해서인가? 그리고 이 접속에 돈이 든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필요할 것이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접속료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이기도 한가? 글을 쓸 때 검열이라는 정치적 필터나 자기검열이 작용하는가? 다시 말해, 인터넷에 접근한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누가 이 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일 때 그게 가능한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입장에 상관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블로거 혹은 집단 블로거 프로젝트의 독립성 정도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이고 접속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어떤 블로거도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다. 모든 형태의 인터넷 접속에는 어떤 권력,

어떤 기관과의 타협이 필요하다. 요아니 산체스, 레이날도 에스코바르, 「쿠바의 소리」 그룹도 관공서 직장, 공무원 지위, 기관을 통한 인터넷 접속 등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차단당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두려움이나 이중 모럴 같은 것도 버릴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쿠바에서 독자적인 견해를 표현할 때면 늘 겪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기관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기관도 접속을 차단할 수 없고 그들이 쓰는 내용을 규제할 수 없다. 이는 재니스 조플린이 밥 맥기를 노래한 다음 가사에도 등장하지 않는가. “자유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것의 다른 이름이라네.”

이제는 자신이 어떤 조직이나 정당, 다른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고 ‘대안적’이라고 칭하는 블로거들의 실질적인 독립에 대해 유효성 있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자. 관련 블로그스피어에 속하는 (또는 공적 미디어 내부에 있는) 비판론자들은 그런 독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용병’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자칭 ‘독립’ 블로거들을 비방한다. 독자적인 방침이 있는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블로거들에게는 통제와 검열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 일레인 디아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쿠바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 자판을 두드릴 시간을 요청하러 미국의 쿠바 이익대표부를 방문하는 거라면 정말 기쁠 것이다. (...) 내 인터넷 접속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저들의 접속은 또 다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저들의 자유도 관련이라고 비난을 받는 블로거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극히 제한적이다.”

디아스의 주장은 자칭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블로거들도 통제와 검열을 받으며, 인터넷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검열을 하기도 하므로 결국에는 기관과 정부를 통한 접속과 다를 게 없다는 논리이다. 이들은 인터넷 접근성을 잃게 될까 두려워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지도 못할 것이고, 미국의 쿠바 이익대표부에 앉아 쿠바 사회주의에 항의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으리라고 말한다. 나아가 디아

스는 스스로 반체제파(말하자면 반혁명세력)라고 표명하지 않는 블로거는 당연히 관변인사라는 식의 단순논리를 거부한다. “내가 속한 블로그스피어는 만들어질 때부터 보호 감독을 받았고, 포스팅할 문장을 전화로 불러준다. 몇 시간의 무료 인터넷 사용과 쥐꼬리만 한 급여에 만족하는 무비판적이고 무신경하며 어리석은 블로그스피어이다.” 디아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반대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관변인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반어적이다. 그러나 이 말은 2004년 12월 디지털 잡지 『쿠바 여론』을 창간한 레이날도 에스코바르가 반혁명적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을 때 펼친 논리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는 “독립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부의 반대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사관의 통신망을 자주 사용하는 대다수의 독립 블로거들은 미국의 정책을 수차례 반복해서 비판해왔다. 이는 독립성의 정도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그들이 제국에 봉사하는 단순 용병이라는 말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미리아 셀라야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내 경우는 인터넷 통신망을 빌려 쓴 대사관들이 내가 어떤 내용을 올리는지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그들은 어떤 도그마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적도, 특정 내용의 글을 제약한 적도 없다. 사실 미국 이익대표부를 통한 접속을 하겠느냐는 제안도 받았다(내가 출간한 글과 내 이름으로 나온 자료들 중에 엠바고에 반하는 것도 있고, 그들의 간섭이나 뭔가를 첨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을 했다. 한번은 미국 공무원들과 면담 자리에서 부시 행정부 시절 입안된 체제전환계획을 비판한 적도 있다). 사실 미국 이익대표부를 통한 접속에 마음이 끌렸다. 무엇보다도 내 취향에 맞는 것이 많았기 때문인데, 특히 플래시메모리 작동이 이전에 접속한 대사관과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버나의 미국 이익대표부에 들어가려면 꼭 받아야 하는 검사를 제외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사실은 미국 정부 비자를 신청할 때와 같이 필요에 의한 방문을 제외하면 그곳에 가는 게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대사관은 음란물이나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인터넷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만 내세웠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 대사관들에서는 관변 블로거의 접속을 거부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한 그런 요청을 하지 않는다.”

\_ 조영실 옮김

원제와 출처

“Una cartografía de la blogósfera cubana: Entre «oficialistas» y «mercenarios»,  
*Nueva Sociedad*, N° 235, septiembre-octubre de 2011, pp. 90-109.

## 참고문헌

- Calzadilla, Erasmo, “Insufficient Arguments against Yoani”, Havana Times, 2009.12.18.,  
[www.havanatimes.org/?p=17219](http://www.havanatimes.org/?p=17219)
- Díaz Rodríguez, Elaine, “Blofs y periodismo en Cuba: entre el ‘deber ser’ y la realidad”, *Revista latina de Comunicación Social*, No. 64, 2009,  
[www.revistalatinacs.org/09/art/873\\_Habana/74\\_97\\_Elaine\\_Diaz.html](http://www.revistalatinacs.org/09/art/873_Habana/74_97_Elaine_Diaz.html)
- Dilla Alfonso, Haroldo, “Cuba: algo más que un simple chancleteo”, Siete Días, 2009.11.08.,  
[www.7dias.com.do/app/article.aspx?id=63092](http://www.7dias.com.do/app/article.aspx?id=63092)
- Grogg, Patricia, “Periodistas se asoman a la blogósfera”, *Inter Press Service*, 2008.07.23.,  
[www.diariodigital.com.do/articulo,31034.html](http://www.diariodigital.com.do/articulo,31034.html)
- Sánchez, Yoani, “Generación Y: el making of”, *Penúltimos Días*, 2010.01.19.,  
[www.penultimosdias.com/2010/01/19/generacion-y-el-making-of/](http://www.penultimosdias.com/2010/01/19/generacion-y-el-making-of/)
- Ubieta Gómez, Enrique, “Yoani Sánchez: la hija de PRISA”, *Granma Internacional*, 2009.11.28.,  
[www.granma.cu/espanol/2009/noviembre/sabado28/Yoani-Sanchez.html](http://www.granma.cu/espanol/2009/noviembre/sabado28/Yoani-Sanchez.html) (Artículo original publicado en *La República.es*, 2009.01.01.,  
[www.larepublica.es/spip.php?article13897](http://www.larepublica.es/spip.php?article13897) y en el blog Cronos, 2009.01.03.,  
<http://tiemporeal.wordpress.com/2009/01/03/yoani-sanchez-la-hija-de-prisa/>